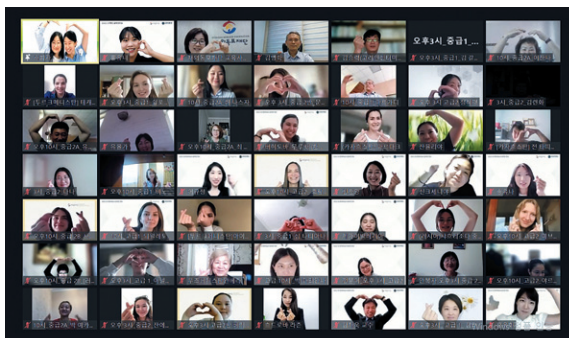




특집 _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체험 행사... 재외동포재단, 1천300여 명 초청
 기획 _ 미국 내 한국계 인사들, 백악관·법원·검찰·경찰 고위직 잇따라 진출
 화제 _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 수상 쾌거



쿠바 한류 커뮤니티 '아르코' 를 아시나요?

쿠바의 한류 커뮤니티 '아르코'(ArtCor)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해외 한류 커뮤니티 지원'(Hallyu Com-on)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해외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문화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개별 및 연합 커뮤니티 지원'에 헝가리, 독일, 영국 등 12팀, '직접 신청' 부문에 인도, 중국, 쿠바 등 3팀 등 총 21팀이 선정됐다. 지역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분야는 날로 다양해졌다. 올해 처음 선정된 곳이 쿠바다. 아르코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쿠바에서 재외동포재단의 도움을 받아 추가모집에서 극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과 쿠바는 100년의 이민사를 공유하고 있다. 1905년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 이민 간 한인들의 후손이 1921년 쿠바에 재이민을 했다. 여러 여건상 쿠바는 아직 한국의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서는 2013년 이래 '내조의 여왕', '대장금' 등의 한국 드라마가 선풍을 일으켰고 현지인 중심의 한류동호회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5년에 창립한 아르코의 활동 지역은 쿠바 전 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활동 분야는 케이팝은 물론 한식,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전통무용 등이라고 한다. 주요활동을 보면 월 2회 정기모임에서는 케이팝 음악 및 댄스 관련 정기행사 'Discorea'를 개최하고 한식 수업도 운영한다. 또 케이팝·한국 드라마 등 한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 공간에서 한국문화 관련 토론 모임도 연다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고 한다.

커뮤니티 내 소규모 모임은 자그마치 50여 개다. 조직력과 활동성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케이팝 페스티벌, 한국문화 주간 행사를 연 1회씩 개최한다. KOFICE가 아르코에 지원하는 것은 행사 주최·모임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현지 수급이 어려운 한국문화 관련 활동 물품 등이다. 현재로서는 지원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기를 바란다.

아르코는 오는 10월 9일부터 일주일간 쿠바 아바나의 아카풀코 극장, 아벨 산타마리아 박물관, 산판콩 광장 등에서 'Korean week in Havana'를 개최한다고 한다. 전

통 한국화, 한국·쿠바 수공예품 등 한국문화 관련 전시회를 필두로 한식, 케이팝 댄스·노래 커버, 한국어 말하기·작문 등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한복 패션쇼, 한식 시식회, 한글 쓰기 수업 등을 체험한다고 하니 상당한 규모와 짜임새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의 일이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랜드마크 말레콘(Malecon, 다큐멘터리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서 파도치는 장면 속 방파제)에서 한류 팬들이 '떼춤'을 추는 광경이 한국 TV에 소개됐다. 유서 깊은 나시오날 호텔을 배경으로 젊은 아바네로들(Havaneros)이 케이팝 커버댄스를 추고 있었다. 노래는 한국의 아이돌 스타 빅뱅의 히트곡인 '뱅뱅뱅'이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한류는 쿠바인들에게 우호의 시그널이 되고 있다. 아르코는 '부에나 비스타 클럽'처럼 양국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다. **장**





- 02 권두언** 쿠바 한류 커뮤니티 '아르코'를 아시나요?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 04 특집**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체험 행사… 재외동포재단, 1천300여 명 초청
- 06 기획** 미국 내 한국계 인사들, 백악관·법원·검찰·경찰 고위직 잇따라 진출
- 08 화제**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 수상 쾌거
- 10 한민족 공감** '간토 조선인학살' 진상규명·명예회복 특별법 추진
- 12 글로벌 코리아** 한인 판사, 미 워싱턴주 슈퍼리어법원판사협회 차기 회장에 추대
미국에 한인 이름 딴 다리 처음 생긴다… '백인숙 다리'
재일사업가 김소부 회장, 일본 적십자에 1천만 엔 기부
- 14 유공 동포** 미국 하와이주 첫 한인 대법원장 지낸 문대양 씨 별세
- 15 주목! 차세대** 재미동포 청소년들, 영어로 '일본군 위안부 책' 펴냈다
- 16 지구촌 통신원** 6·25 전사 미군·카투사 4만3천808명 이름 새긴 '추모의 벽' 준공
- 18 동포소식** 내년 한상대회 조직위원장 "250만 재미동포 축제의 장 만들겠다" 외
- 20 문화유산** 나주읍성, 옛 모습 되찾는 호남의 '천년고도'
- 22 OKF 뉴스** 동포재단, 2년 연속 경영실적평가 '우수(A)' 등급 획득 외
- 24 동포 캘린더** 호주한국음식협회, '시드니 한식 축제' 개최 외
- 25 기고문** 미국 속의 한인, 중국 동포 그리고 고려인 동포
김동찬 시민참여연대 대표
- 26 재단공지** 2022년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9월 개최합니다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체험 행사... 재외동포재단, 1천300여 명 초청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 7~10월 4개월간 진행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할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체험하는 온·오프라인 초청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 연수'에 53개국 1천300명(재외동포 800명, 국내 500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연수는 7~8월 2차례에 걸쳐 전국 6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과 서울·부산·광주·공주·순천·평창(대학생)에서 진행됐다. 온라인 연수는 7월 1~30일 1기를 시작으로 10월 1~30일 4기까지 열리며, 11월 5일에는 메타버스를 통한 1~4기 통합 폐회식 및 수료식도 예정돼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번 대학생 모국 연수의 주제를 ▲민족 유대감 증진 ▲모범적 거주국 구성원으로 육성 ▲'과거·현재·미래의 대한민국 그리고 재외동포 청년'으로 잡고 이를 통해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우리 민족 시조 단군의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념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세계 한인 대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한국을 이야기 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세계시민으로 육성 위해 다채로운 체험 행사 마련

재단은 대학생 연수 참가자들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제고를 위해 문화·가치·공존·상생 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새로 마련했으며, 특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구·기후·환경 이슈 등 참가자 모두가 같이 인식할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청소년 오프라인 모국 연수의 경우 ▲K-문화 공동체 속 정체성 함양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미래 인재 양성 ▲세계 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정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통한 참가자들의 안전한 수련 활동 기반 확보 ▲참여형+체험형+소그룹 중심의 분산형 문화프로그램 강화 ▲도시와 자연·전통문화와 한류 등 균형 있는 프로그램 구성 ▲상생 한류(K-Wave/K-Culture) 이해와 자랑스러운 한국인 교육 강화 ▲국내외 한인 청

소년 유대감 증진을 통한 글로벌 차세대 리더 성장 유도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의미와 가치를 프로그램에 반영 ▲한국어교육 및 모국 이해 학습형 프로그램 강화 ▲모국 연수 이후에도 자발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동 강화 등 8개 항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방역 강화를 포함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실시 등 안전한 연수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온라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 활동 실시간 중계를 통해 학부모들과의 상호 소통도 동시에 진행했다.

한복 체험 행사 참석 대학생들 "신기해요"

대학생 오프라인 모국 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8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는 '우리들의 페스티벌 우리들의 한복'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카자흐스탄 출신 김다닐(21) 씨는 자신이 입은 한복을 연신 만져보면서 "이게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도포이고 갓인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신기해했다. 그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신 선조에 대해 종종 설명해 주셨다"며 "그 덕분인지 나 역시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해왔지만, 오늘 입은 한복은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고향에 돌아가서도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고, 비슷한 옷을 구해서 다시 입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댄스 퍼포먼스를 비롯해 이민사 선언문 낭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계획된 이날 행사는 장맛비 탓에 급히 장소를 실내로 옮겨 전통 의상 경연대회로 변경됐다. 참가자들은 20개 조로 나뉘어 한국을 비롯해 호주, 멕시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9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패션 감각을 뽐냈다.

갓을 쓰고 하늘색 남성 한복을 차려입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박엘레나(19)양은 "저고리와 치마 대신 도련님으로 꾸며서 입었다"며 자신의 의상을 설명했다. 그는 "함께 온 친구들과 사진도 많이 찍었다"며 "요란한 비가 쏟아진 탓에 행사가 급히 바뀌었지만, 차라리 더 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30여 개국 출신 재외동포 청년 150여 명은 호텔 안에 마련된 런웨이에서 각자가 준비해온 출신국 전통 의상을 맘껏 드러내기도 했다. 객석 곳곳에서 서너 명이 함께 모여 셀카를 찍는 풍경도 연출됐다. 행사 관계자들은



2



3



4

코로나19 탓에 3년 만에 치러진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수가 차세대 글로벌 코리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며, 재외동포가 중심이 돼 각 거주국에서 '뷰티풀 코리아인' (Beautiful Koreans)을 알리는 공공외교 역할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



5

1. 7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재외동포재단 주최 '2022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의 개회식 장면
2. '2022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에 참여한 재외동포 청년들이 8월 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우리들의 페스티벌 우리들의 한복'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3. '2022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에 참여한 재외동포 청년이 '우리들의 페스티벌 우리들의 한복' 대회에서 런웨이를 걷고 있다.
4. 재외동포 모국 연수 중 한복 체험 행사에 참여한 박엘레나, 김다닐, 장디아나(왼쪽부터)
5. 모국연수에 참가한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7월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 내 한국계 인사들, 백악관 · 법원 · 검찰 · 경찰 고위직 잇따라 진출

덴 고, 백악관 각료 담당 비서관보... 신디 정, 제3연방고법 판사 후보자에 지명



1



2

미국 내 한국계 인사들이 최근 백악관과 연방고법, 카운티 검찰, 시 경찰의 요직에 잇따라 기용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이 실력과 경력 모두에서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아 고위 공직에 진출하면서 현지 한인사회는 고무된 분위기다.

한국계로 마틴 월시 미 노동장관의 비서실장을 맡아온 덴 고(37)는 7월 19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각료 담당 비서관보에 발탁됐다. 각료 담당 비서관보는 백악관과 각료들 간 가교 역할을 하며, 메시지 조율을 포함한 전반적 소통 창구로도 활동하게 된다.

고 씨의 상사인 백악관 각료 담당 비서관은 에번 라이언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부인이다. 이들 부부는 워싱턴 정가의 대표적 ‘파워 커플’로 꼽힌다. 고 씨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속해서 근무하는 영광을 받았다”며 “라이언 비서관을 도와 미국을 통합하고 재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씨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28세 때 당시 보스턴 시장이었던 월시 노동장관으로부터 시장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돼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2018년 보스턴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석패했으며, 노동장관 비서실장으로 일하기 직전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월시 장관을 동행해 참석한 바 있다.

고 씨의 부친은 미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지낸 고경주(미국명 하워드 고) 씨이고, 작은아버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고문을 맡은 고흥주(미국명 해럴드 고) 씨다. 할아버지는 장면 정부에서 주미 전권공사를 지낸 고(故) 고광림 박사로, 고 씨 집안은 미국 주류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계 가문으로 꼽힌다.

백악관 “신디 정 지명자, 제3연방고법 최초의 아시아계 판사”

앞서 7월 13일에는 한국계 여성인 신디 K. 정이 미국 연방고법 판사로 지명됐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지명자는 제3연방고법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판사”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아 공식 임명된다. 제3연방고법은 델라웨어와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주를 관할한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앨라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 공판 검사로 재직했다. 2014년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고,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탁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됐다.

‘한국 사위’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딸 스티어링은 카운티 검사장 예약

한편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의 한국계 딸인 제이미 스티어링은 주 산하 카운티의 검사장 자리를 예약했다. 스티어링은 7월 19일 세인트매리스 카운티의 검사장을 뽑기 위한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71%의 득표율을 얻어 현직인 리처드 프리츠 검사장을 꺾고 승리했다.

이 예비경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민주당 후보가 없어 스티어링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첫 아시아계 검사장이, 또 세인트매리스 카운티에서는 첫 소수계 검사장이 탄생하게 됐다. 스티어링은 앞서 14년 간 검사로 재직했다.

스티어링은 “한인의 지지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큰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운티는 주 정부 아래 행정단위로, 미국은 주 법무장관과 카운티 검사장 투표로 뽑는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를 부인으로 뒤 ‘한국 사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호건 부부는 세 명의 딸을 뒀는데, 스티어링은 둘째 딸이다.

한인 허정윤 뉴욕경찰 경감, 경정으로 승진

7월 21일에는 뉴욕시 경찰(NYPD)에서 한인이 처음으로 경정급(Deputy Inspector) 간부로 진급하는 경사가 있었다. NYPD는 이날 ‘맨해튼 보로 남부 감찰부’를 이끄는 허정윤 경감(Captain)이 경정으로 승진한다고 발표했다.

허 신임 경정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NYPD의 높은 ‘유리천장’을 뚫은 것 같아 기쁘다”며 “경찰 고위직에 오르는 한인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

하며, 한인 경찰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인이 경정급에 오르는 것은 1845년 설립된 NYPD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NYPD는 3만6천여 명의 경찰관과 1만9천여 명의 민간 직원을 거느린,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경찰 조직이다.

NYPD 계급 가운데 ‘Captain’까지는 시험을 통해 진급할 수 있지만, ‘Deputy Inspector’부터는 지명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어 실력과 신망을 겸비해야 한다.

허 경정은 지난 1998년 NYPD의 한인 첫 여성 경관으로 임용됐다. 2003년 Sergeant, 2011년 Lieutenant, 2016년 Captain으로 승진했다. 그는 맨해튼과 퀸스 등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찰서에서 수석행정관, 감찰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한인 경관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써왔다. [▶](#)

1. 미국 백악관 각료 담당 비서관보 맡은 덴 고(덴 고 트위터 제공)
2. 미국 제3연방고법 판사에 지명된 신디 K. 정(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3. 미국 메릴랜드주 세인트매리스 카운티 검사장 맡게 될 제이미 스티어링(오른쪽)과 모친 유미 호건 여사(제이미 스티어링 선거 캠프 제공)
4. 한인 최초로 미국 뉴욕경찰 경정으로 진급한 허정윤 씨(미주한국일보 제공)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 수상 쾌거

한국서 어린 시절 보내고 석사까지 마친 '국내파'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이(39, June Huh)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과 석학교수가 7월 5일(현지시간)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제수학연맹(IMU)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허 교수를 필즈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허 교수는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인 수학자로서는 최초 수상이다. 이전까지 한국계나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적은 없었다.

1936년 제정된 필즈상은 4년마다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도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세 미만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수학 분야 최고의 상으로 아벨상과 함께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한번 시상할 때 보통 2~4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날 시상식에선 허 교수 외에 3명이 공동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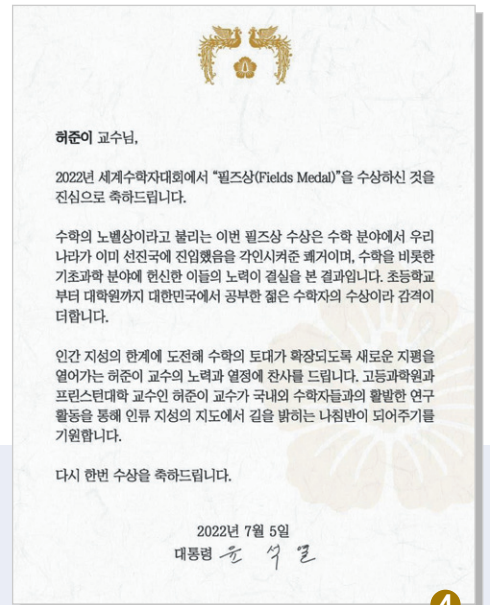
수상자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마리나 비아조우스카도 포함됐다. 비아조우스카는 필즈상 사상 두 번째 여성 수상자다. 수상자에게는 금메달과 함께 1만5천 캐나다 달러(약 1천5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나이 제한 때문에 39세(1983년생)인 허 교수에게는 올해가 필즈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필즈상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수학자대회(ICM)에 맞춰 수여된다. ICM은 기초과학 분야 최대 학술대회로 전 세계 수학자가 참여한다.

허 교수는 수상 뒤 인터뷰에서 "필즈상 수상자 명단엔 제가 하는 분야인 대수기하학에 큰 공헌을 하신, 저어겐 영웅 같은 분들도 이름이 줄줄이 있다"며 "그 명단 바로 밑에 내 이름이 한 줄 써진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필즈상 수상자 선정 이유에서 나열한 결과와 논문들을 보면 "제가 혼자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료들과 같이 진행한 연구들이 많다"면서 "그 동료들을 대표해서 제가 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꾸준히 신나고 재미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



4

리드 추측, 로타 추측 등 수학적 난제 증명으로 주목

허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두 살 때 아버지 허명희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어머니 이인영 서울대 노어노문과 명예교수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뒤 초등학교부터 대학 학부와 석사 과정까지 한국에서 마쳤다.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본 그는 2007년 서울대학교(수리과학부·물리천문학부) 졸업 후 2009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수리과학부) 과정을 마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2014년 박사(수학) 학위를 받았다.

허 교수는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난 이후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 등 오랜 수학 난제들을 하나씩 증명하면서 수학계에 명성을 떨쳤다. 리드 추측은 채색 다항식을 계산할 때 보이는 계수의 특정한 패턴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1968년 제기된 수학적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허 교수는 뛰어난 연구 업적과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앞서 사이먼스 연구자상, 삼성 호암상, 뉴호라이즌상, 블라바트닉 젊은과학자상 등을 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등 각계 축하 잇따라

허 교수가 필즈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자 각계에서 축하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에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번 필즈상 수상은 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각인시켜준 쾌거이며,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에 헌신한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젊은 수학자의 수상이라 감격이 더 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대수기하학에 대한 강력한 직관을 바탕으로, 조합론 난제들을 공략하는 등 서로 다른 이 두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은 두 분야 모두에 정통한 수학자만이 시도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연구"라며 "대수기하학의 토대가 더욱 확장되도록 새 지평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 수상의 쾌거를 이룩했다"며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리드 추측에 대한 연구의 선행 연구는 서울대 석사과정에서부터 시작됐으며, 허 교수의 많은 연구가 스칼라로 고등과학원(KIAS Scholar)에 있는 동안 이뤄졌다"며 허 교수가 국내 학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재임을 강조했다.

허 교수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인 김영훈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40세가 되기 전에 그토록 많은 난제를 해결한 걸 보면 누구든 허준이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하고도 남을 만큼 성취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꿈만 같다"고 말했다.

허 교수의 아버지인 허명희 교수는 "나도 크게 보면 수학적 일원이기에 가까운 가족에서 큰 성취가 이루어진 데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아들인 허 교수가) 수상으로 들뜨지 않고 꾸준히 정진했으면 한다"고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

1. 7월 5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하고 있다.
2.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기초론 석학교수가 7월 5일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수학연맹(IMU) 필즈상 시상식에서 필즈상을 수상한 뒤 메달과 들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3.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가 7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4. 윤석열 대통령이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교수에게 보낸 축전



‘간토 조선인학살’ 진상규명 · 명예회복 특별법 추진 40여 개 국내외 시민단체 연대해 ‘100주기 추모사업 추진위’ 발족

국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합심해 1923년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간토학살은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규모 7.9의 간토대지진이 일본 수도권 일대를 강타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일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 등이 대거 학살된 사건이다.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를 한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 자경단, 경찰, 군인에 의해 6천여 명(독립신문 기록)이 살해됐다.

발족식에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외과거정산을 위한 공동행동, 거래하나, 민족문제연구소, 시민모임 독립,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구촌동포연대 등 국내외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은 “당시 상해임시정부는 진상 조사에 나서 조선인이 억울하게 학살된

것을 세상에 알렸지만,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누구고, 어디에 묻혔고, 유족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채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앞서 자행된 민족학살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시민단체가 연대하게 됐다”며 “진상 규명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앞서 해결돼야 할 과제다. 이 끔찍한 역사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 진상조사위 구성, 진실 밝혀 일본 책임 물을 것”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대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종걸 전 국회의원은 “일본에서는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는 움직임마저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한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진정한 양국 우호 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사에 나선 유기홍 의원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오는 9



2



3

월 초에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총위원회와 간토대학살을 기억하는 행동, 일본의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 등이 연대사를 발표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종수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대표는 추진위 주요 사업으로 '특별법 제정', '학살을 알리기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99주기와 100주기 추도식 한일 공동 개최', '학살 진상을 알리는 특별전시 및 순회전시 개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집행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간토학살을 일본 정부가 주도한 것을 밝혀내고, 국가 책임과 피해 보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당시 테러범 등 범죄자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기념사업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손미희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광열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진상규명을 위해 북한 및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발족식은 김은형 민주노동총 부위원장장과 허권 한국노동총 부위원장의 발족 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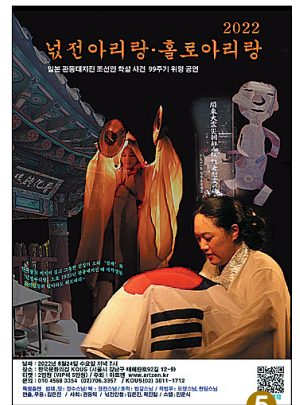
무용가 김은진 씨, 간토학살 99주기 위령 공연 열어

한편 무용가 김은진(49) 씨는 8월 2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한국문화의집 KOUS'에서 일본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99주기 위령 무대인 '넋전 아리랑·홀로아리랑'을 열었다. '넋전'은 죽은 자의 넋을 받는 종이 인형으로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며, 진혼·추모제 등에서 활용하는 소품이다. 치유 무용을 전공한 그는 명지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서 무용 실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씨가 간토학살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15년 1인극의 거장이자 민속학자로 '사물놀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기도 했던



4



5

심우성 선생을 만나면서부터다. 심 선생의 '통일 결혼 굿'에서 희생자의 혼령을 위로하는 춤사위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그는 그때부터 은사로 모시고 춤을 더 배웠다.

간토 조선인학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앞장서 왔던 심 선생은 1985년 일본 지바(千葉)현 소재 사찰인 관음사에 역사를 바로 알리고 희생자를 위로하는 '보화종루'(普化鐘樓)를 세우는 데 앞장섰다. 김 씨는 "보화종루 앞에서 넋전춤을 추는 무대를 열려고 했는데, 2018년 선생이 타계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늘 맘에 걸렸다"며 "늦게나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

- 7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김은형 민주노동총 통일위원장(왼쪽), 허권 한국노동노동총 상임부위원장이 발족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2020년 9월 1일 일본 도쿄 스미다(墨田)구의 도립요코야마치(横濱)공원에서 남녘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 일조(日朝)협회 도쿄도연합회 등이 이날 이 공원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 추모식을 개최했다.
- 8월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문화의집 KOUS'에서 일본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99주기 '넋전 아리랑·홀로 아리랑' 위령 무대를 마련한 무용가 김은진 씨
- 간토학살 위령 '넋전아리랑·홀로아리랑' 공연 안내 포스터



한인 판사, 미 워싱턴주 슈퍼리어법원판사협회 차기 회장에 추대 정상기 킹카운티 판사, 내년 4월 취임... 판사 200여 명 대표

미국 워싱턴주 슈퍼리어법원판사협회(WASCJA) 차기 회장에 한인 정상기(미국 명 새뮤얼 정) 판사가 추대됐다. 정 킹카운티 판사는 7월 15일 언론에 “단독출마해 선거 없이 협회장에 최근 추대됐고, 내년 4월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 법원은 디스트릭, 슈퍼리어, 상고법원, 대법원의 단계로 구성됐다. 슈퍼리어 법원(Superior Court)은 ‘지방 법원’ 또는 각 카운티에 하나씩 있어 ‘카운티 법원’으로 불린다. 워싱턴주에는 39개의 카운티가 있다.

정 판사는 “1933년 워싱턴주 법률(RCW 2.16)에 따라 설립된 협회 내 200여 명의 현직 판사를 대표한다”며 “법원 내 커미셔너와 은퇴 판사들까지도 대변하는 워싱턴주 법조계의 큰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서울 출신인 그는 12살 때 부모와 미국에 이민했다. 컬럼비아대와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198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시애틀에 있는 ‘리 애나브 정 법률회사’의 파트너였고, 상법, 중재 등의 분야를 주로 맡았다.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2014년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 의해 킹카운티 슈퍼리어 법원 판사에 임명된 후 2015년, 2016년, 2020년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다.

2017년 워싱턴주 아시아인 변호사협회(ABAW)로부터 ‘올해의 판사’(Judge of the Year)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1992년부터 한인 생활상담소를 설립해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미국에 한인 이름 딴 다리 처음 생긴다... ‘백인숙 다리’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 어려운 이웃에 선행 베푸는 백 씨 기려

미국에서 한인 이름을 딴 다리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에 처음으로 생긴다. ‘인숙백 브릿지’(Insook Baik Bridge)로, 1981년부터 이곳에 사는 백인숙(71) 씨의 이름을 땀다. 전장 235m의 이 다리는 2008년 6차선으로 건립됐지만,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다. 마운틴뷰 구역과 브라가우 구역을 잇는 글렌 하이웨이에 있다.

다리 명명 계획은 올해 초 게란 타르 주 하원의원의 법안(HB 359) 발의로 시작됐다. 이후 조시 레바크 주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SB 203’에 추가했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최근 상원까지 통과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게란 타르 의원의 보좌관인 한인 송명근 씨가 최근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송 씨는 앵커리지시가 8월 중 7천 달러(약 914만 원)를 들여 간판을 부착하고,



명명식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리 이름의 주인공 백 씨는 부산 출신으로 1980년 미국 뉴욕에 이민했다가 이듬해 앵커리지로 이주했다.

‘마운틴 뷰 쉼’ 주유소를 운영하는 그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 법안에는 “백인숙은 앵커리지 시민으로, 이곳에서 40여 년을 살았다. 그는 한국전쟁 때 한국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미국에 이민해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었다”고 밝히면서 “그는 앵커리지에 주유소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추수감사절에 푸드 트럭을 운영해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을 무료로 나눠줬고, 그 일을 10년 이상 해 왔다”고 소개했다. 주앵커리지 한국출장소(소장 상승민)는 8월 초 백 씨(사진 오른쪽)를 초청해 축하 행사를 열어줬다.



재일사업가 김소부 회장, 일본 적십자에 1천만 엔 기부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수재민 돕기 위한 나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은 8월 11일 산하 기관인 생활상담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김소부(76·사진 왼쪽) 가네시마칸코(金嶋觀光)그룹 회장이 일본적십자 도쿄지부에 1천만 엔(약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본이 코로나19 세계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방역 최일선의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과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등에 힘을 보태려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가네시마칸코 그룹은 일본 유명 노래주점 체인인 가라오케747을 비롯해 레스토랑과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직후인 2020년 4월에도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의료용 마스크 4천 개를 한국에서 구해와 일본적십자에 기증했다.

지난해 1월에는 도쿄 신주쿠(新宿)구 오쿠보(大久保)병원에 코로나19 치료를 돕기 위해 1천만 엔을 기부했다. 올해 4월에는 도쿄 아동양호시설에도 1천만 엔을 후원했다. 그는 30년 전부터 전 직원의 ‘1인당 300엔 기부’ 운동을 주도해 일본 적십자와 유니세프에 성금을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김 회장은 진주시 경남과학기술대학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고, 모국에서 태풍·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수재의연금을 내놓기도 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는 그가 타고 자랐던 이바라키(茨城)현에 1천만 엔과 식료품을 기부했다. 재일동포 출신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한 기금도 조성해 2021 도쿄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인 재일동포 출신 안창림을 지원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민단의 생활상담센터 소장을 맡아 동포들의 권익 향상에도 앞장서 온 그는 2016년 한국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장**



미국 하와이주 첫 한인 대법원장 지낸 문대양 씨 별세

향년 82세... 하와이주 법무부 “전설을 잃었다” 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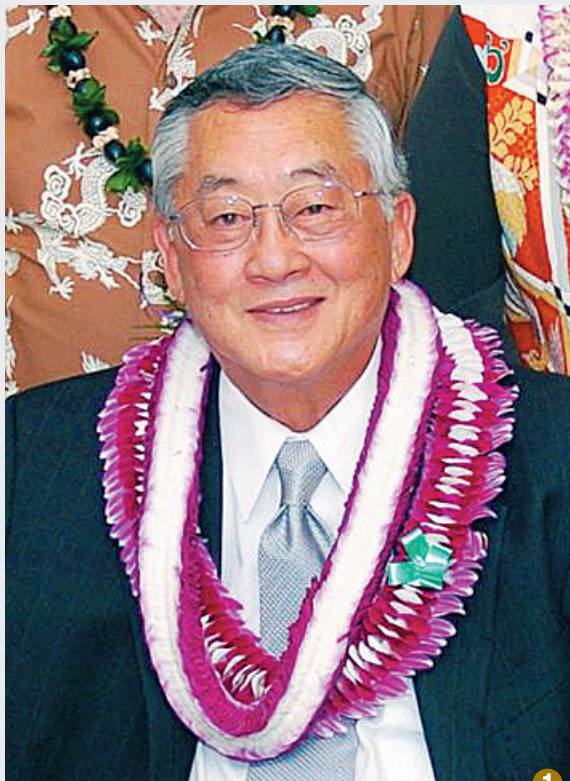
미국 한인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주 (州) 대법원장에 올랐던 문대양(영문명 로널드 문) 전 하와이주 대법원장이 7월 4일(현지시간) 오후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하와이주 사법부의 수장 자리까지 오른 고인은 아버지 문덕만 씨와 어머니 메리 문 씨 사이에서 1940년 9월 한인 3세로 하와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문정헌 옹과 외할아버지 이만기 옹은 1902년 12월 첫 미주 한인 이민선인 게일릭호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1903년 1월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 1세대. 문정헌 옹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고단한 이민 생활을 했지만, 한국인을 위한 교회와 학교를 세워 한인 사회에 크게 기여했다.

문 전 대법원장은 아이오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와 순회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를 거쳐 1993년 하와이주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2010년 70세에 퇴임할 때까지 17년간 주 사법부 수장 역할을 맡아왔다.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동성 결혼이나 원주민 권리 보호,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해 획기적인 판결을 했고,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년을 맞아 다이빙 영웅 새미 리, 야구선수 박찬호 등과 함께 ‘미주 이민 100년의 영웅 7인’에 뽑히기도 했다.

문 전 대법원장은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내려 온 한국의 가족, 노동 등에 대한 가치를 배웠기에 교포 중 최초로 미국의 주 대법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며 “한국처럼 전쟁을 겪고도 빠르



1



2

게 성장한 나라는 세계에 없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의 별세에 하와이주 법무부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전설을 잃었다. 그는 한인으로서 최초로 주 대법원장을 지냈고 28년간 판사로 봉사했다”며 애도했다. [\[참\]](#)

1. 7월 4일(현지시간) 별세한 문대양 전 미국 하와이주 대법원장(이하 미주한국일보 제공)
2. 미국 하와이주 대법원장 시절 문대양 법관의 모습

재미동포 청소년들, 영어로 '일본군 위안부 책'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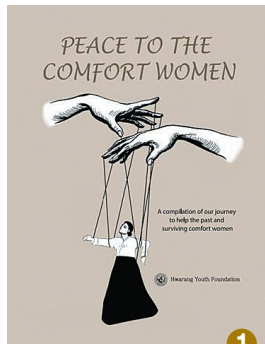
화랑청소년재단, 에세이 등으로 꾸민 '위안부를 위한 평화 쟁취' 출간

재미동포 청소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영어책 'PEACE TO THE COMFORT WOMEN' (위안부를 위한 평화 쟁취·화랑청소년재단)을 최근 출간했다. '과거의 그리고 생존한 위안부들의 여정을 돕는 우리 여행의 모음집'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한국에서 출판돼 전량 미국에 보내졌다. 8월 8일부터 미국 내 시립, 주립 도서관 등과 각급 학교에 배송됐다.

102쪽의 이 책은 화랑청소년재단(총재 박운숙) 소개로 시작된다.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키워주기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된 재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남가주와 북가주, 보스턴과 하와이, 애리조나 등 미국 전역에 32개 지부, 한국과 우크라이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에 21개 지부를 냈다.

책에는 그동안 재단이 주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포럼 등 행사 리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일본군 위안부의 날'을 제정·선포하고 이듬해 평화의 소녀상을 시 공립공원에 건립한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시 중앙도서관에 전하는 감사 편지 등이 들어있다. 또 엘리스 문, 케이트 박, 정호연, 아리사 정, 안시현, 브리안 여, 재닛 킹 등 화랑 청소년들이 쓴 위안부 관련 에세이와 리즈 하, 제이슨 표, 아일린 리, 조안나 진, 안젤라 공 등 학생들이 그린 관련 삽화도 담겼다.

케이트 박 학생은 에세이에서 "독일 정부는 유대인 집단학살을 인정하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맹세하지만, 일본은 위안부 여성에 대해 진솔하고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동상



1



2

을 제거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위안부들은 전쟁 중에는 가해자들로부터, 전쟁 후에는 모국으로부터 고통과 억압을 당했다"고 서술했다.

학생들이 직접 글렌데일시를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도 책에 담았다. 프랭크 킨테로 글렌데일시장, 시 기획위원인 한인 이창성 씨, 아라오사간 시 중앙도서관 갤러리 큐레이터, 박윤숙 총재와 사라 박 이사 등이 인터뷰에 응했다.

킨테로 시장은 인터뷰에서 "일본 제국군이 어린 소녀들이 대부분인 위안부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록하고, 마침내 일본 정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젊고 무고한 소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책에는 11번째 '일본군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와 소녀상 사진 등도 들어있다. 위안부 역사를 지키려는 중국과 태국, 필리핀, 캐나다 정부와 단체의 노력 등도 기술됐다. 김학순(1924~1997년), 김복동(1926~2019년), 이옥선(1927~) 등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도 소개한다.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총재는 "이 책은 위안부를 기리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글렌데일시와 시의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본 위안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영어로 글을 쓰고, 사진과 삽화를 삽입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창**

- 1. '위안부를 위한 평화 쟁취'라는 제목의 책 표지
- 2. 아일린 리 학생이 그린 위안부 삽화

6·25 전사 미군·카투사 4만3천808명 이름 새긴 '추모의 벽' 준공

미 워싱턴 D.C.서 헌정식... 윤석열 대통령 “한미혈맹 강고함 상징”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4만3천808명의 이름을 각인한 전사자 추모의 벽이 7월 27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새 상징물로 위용을 드러냈다. 미국의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은 한국전 정전협정 69주년인 이날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 겸 헌정식을 개최했다.

헌정식에는 한국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조태용 주미대사가,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그 엠호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텔러리 한국전참용사추모재단 이사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미군 참전용사, 현지 한인 등 2천 명가량도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보훈처장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한미 혈맹의 강고함을 나타내는 조형물이 건립됐다”며 “한국전 참전용사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유의 수호자이자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희생 위에 우뚝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보훈처장은 메시지 낭독 뒤에 한국말과 영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바이든 대통령 대신 참석 미국 세컨드젠틀맨 “한국과 나란히 서 있을 것”

미국의 ‘세컨드젠틀맨’인 엠호프는 코로나19에 걸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계속 한국과 나란히 서 있을 것”이라며 “추모의 벽은 이 약속을 구체적이고 영원히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freedom)는 공짜(free)가 아니다’라는 교훈을 희생으로 보여준 한국전 전사자들의 이름이 한명 한명 기억되기까지는 1995년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이 조성된 후에도 30년 가까이 걸린 만큼 이날 행사는 엄숙하면서도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사전 행사와 본 행사 순으로 진행된 헌정식은 미국 군악대의 ‘아리랑’으로 사실상 시작됐다. 재미 교포 군악대원이 우렁차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로 부른 아리랑이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에 울려 퍼지자 추모 분위기가 한층 숙연해졌다.

헌정식 사전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조너선 일리어스 아나운서는 “학교에서 한국전쟁을 ‘잊힌 전쟁’으로 배웠을 때 도대체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고 스스로 반문했다”면서 참석한 참전용사와 유가





족, 군인들에게 차례로 일어서달라고 말하면서 박수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어 조태용 주미대사가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에 이어 추모의 벽이 완공된 것을 축하한 뒤 한국전에 참전한 22개국을 뽀기에부터 알파벳 순으로 하나씩 언급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특히 한국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미국을 호명하자 박수 소리가 커지면서 환호성도 들렸다. 본 행사를 위해 미국 성조기와 한국 태극기가 나란히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전원 기립해 양국 국기에 예의를 표했다. 이어 군악대가 한미 양국 국가를 차례로 연주하면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상기시켰다.

30도 안팎 무더운 날씨에도 한미 인사들 행사장 가득 메워

이날 행사는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 속에 진행됐으나 참석자들은 시작 1시간여 전부터 행사장에 모여들기 시작해 준비된 1천500개의 의자를 대부분 채웠다. 한미 양국에서는 정부 측 인사 외에 의회 인사들도 참석했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삼성, 현대차 등 기업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장 진행요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참석자들에게 생수와 아이스팩, 부채 등을 건넸으며 무더위에도 참석자들은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추모의 벽은 작년 3월 공사를 시작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인 이날 준공식 겸 헌정식을 열었다. 조형물 중앙의 '기억의 못' 둘레 130m에 1m 높이의 화강암 소재 패널로 비스듬히 벽을 세우고 그 벽면에 미군 전사자 3만6천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천174명의 이름을 군별, 계급·알파벳 순으로 각인했다.

두께 약 72cm, 무게 4~8t의 화강암 패널 총 100개가 쓰였는데, 53개에 이등병과 일등병이 이름이 각인돼 있어 당시 수많은 미군·카투사 청년이 전장에서 산화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추모의 벽에는 특히 카투사의 이름을 함께 새겨 넣어 미국 내 참전 기념 조형물 가운데 비(非)미국인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첫 사례가 됐다.

추모의 벽 건립은 2016년 10월 7일 미 상원에서 '추모의 벽 건립법' 통과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한미 양국의 노력과 각계의 지원으로 결실을 봤다. 추모의 벽 건립에 든 예산 274억 원(2천420만 달러) 가운데 266억 원을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지원했고, 나머지는 건립사업 주체인 미국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재향군인회, 한국 기업, 국민 성금으로 충당됐다. 보훈처는 앞으로 개보수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창**

류지복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특파원



1.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왼쪽에서 네번째)이 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 행사에 참석해 한미 주요 인사들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제막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상징인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부인 애널리 웨버 여사를 위로하고 있다.(SK 제공)
3.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일반에 공개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4.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이 한국 정부 대표로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5.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그 엠호프가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헌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내년 한상대회 조직위원장 “250만 재미동포 축제의 장 만들겠다”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련 회장, 정부·지자체 지원 호소

“2023년 10월 11~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를 250만 재미동포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내년 세계한상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련협회 회장의 포부다. 2023년 대회는 해외에서 처음 개최하는 것을 감안해 조직위원회를 미리 구성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 50개 주 내 78개 도시에 설립된 지역 한인상공회의소를 총괄하는 주장이다.

대회 준비차 방한한 황 위원장은 8월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숙박 시설과 컨벤션 사용 계약, 프로그램 마련 등 여러가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20년 만에 해외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인 만큼 21세기 한민족 경제 영토를 넓히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현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비롯해 미국 내 한인사회 단체들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륙별 단체들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준비 상황을 전했다.



2023년 ‘제21차 세계한상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련 회장

그는 8월 중순까지 국내에 머물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국회, 기업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오렌지카운티 행사를 시작으로 격년으로 해외에서 세계한상대회를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21차 대회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사를 뒷받침할만한 예산(약 600만 달러·78억 원)의 확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남은 기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황 위원장은 “동포재단의 지원금은 8억원이 고작이어서 재미동포와 대륙별 한상은 물론 한국 정부,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아무래도 내년 대회가 해외 개최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정부가 예산을 더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경북 청송 출신인 황 위원장은 2001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이민해 21년째 난 농사를 짓고 있다. 10에이커(4만여㎡) 크기의 난 농장 코러스(Korus)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 청송 출신인 황 위원장은 2001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이민해 21년째 난 농사를 짓고 있다. 10에이커(4만여㎡) 크기의 난 농장 코러스(Korus)를 운영하고 있다.

김방수 신임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한일 관계 개선 앞장”

“재일동포 경제 활성화 위해 사업 확대·지자체와 협력 강화”



김방수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신임 회장

재일동포 경제단체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는 2년 임기의 13대 회장으로 교토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출신의 김방수(68) 부회장을 선출했다. 최근 도쿄 미나토(港)구 한국중앙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해 투표를 거쳐 선출된 김 회장은 “재일 상공인으로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어 “재일동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공회 회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확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원칙을 지키는 조직 운영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도쿄 한국중앙회관에 본부가 있는 상공회의소는 일본 주요 지역 17개에 지역상공회의소를 두고 있다. 김 회장은 교토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도쿄 청년상공인회 활동을 시작으로 40년간 지역 상공회의소 활동에 몸담아온 그는 “지역별 현안에도 귀 기울여 지회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수평적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하도록 힘쓰면서 일본 국적 취득자 또는 1980년대 이후 건너온 기업인 등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상공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분규 단체 지정 해제됐다

외교부 분규단체 지정 해지 통보... 한인사회 “개혁 필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공동회장 김병직·국승구)가 분규 단체 지정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환골탈태를 모색하고 있다. 7월 26일 외교부는 7년간 분쟁을 이어오다가 지난 5월 총회에서 통합을 이뤄낸 미주총연을 분규 단체 지정에서 해제했다. 이에 현지 동포사회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일제히 입을 모았다.

미주총연은 8월 1일부터 정부 주관 행사 초청 대상에 다시 포함됐고, 재외동포재단의 각종 행사 지원금 교부도 받을 수 있게 돼 정부가 인정하는 한인사회 단체의 기능을 회복했다. 또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던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에 복귀하고 지난해 발족한 세계한인회총연합회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분규 끝내고 지난 5월 통합 이룬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대표들(미주총연 제공)

미국 내 각 지역 한인회는 170여 개에 달한다. 미주총연은 이들 지역의 전·현직 한인회장이 참여해 1977년 결성된 연합단체다. 45년의 역사가 있지만, 그동안 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홍이 여러 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7년이나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면서 미주 한인사회를 대변할 대표성을 잃어버렸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현지 동포 언론인은 “미주총연이 무엇보다 현직 한인회장 중심의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제1대부터 29대까지 각 지역 전직 한인회장들이 회장을 거의 독식했고, 일부 기득권 그룹들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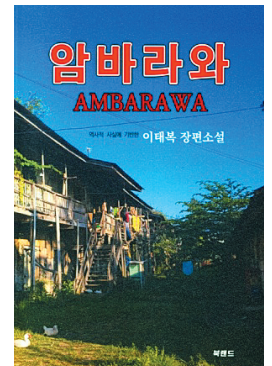
인니 한인 작가 이태복 씨, 장편소설 ‘암바라와’ 출간

태평양전쟁 당시 현지 끌려온 조선 청년들과 위안부들 삶 그려

인도네시아에 활동하는 한인 동포 작가 이태복(62) 사산 자바문화연구원장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현지에 끌려온 조선인 청년들과 위안부들의 기구한 삶과 투쟁을 그린 장편소설 ‘암바라와’(AMBARAWA·북랜드 출판)를 출간했다. 경북 예천 태생으로 시인이기도 한 작가는 이 소설의 출간에 맞춰 7월 16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한국대사관 내 한인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416쪽 분량으로 역사적 사실에 철저히 기반한 이 장편소설을 쓰기 위해 저자는 당시 조선인 청년들이 연합군 포로 감시원으로 근무했던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 암바라와성(城)을 비롯한 열도 현장을 5년간 직접 탐방했으며, 4년에 걸친 집필 기간 원고를 25번이나 고쳐 썼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위안부로 지낸 고(故) 정서운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과 포로 감시원이었던 이훤(본명

이억관) 고려독립청년당 총령의 기록을 토대로 해 이 소설을 구상했다. 일제는 1942년 3월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뒤 같은 해 9월 조선인 위안부 23명과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기 위해 동원된 조선인 군속 1천 400명을 배에 태워 자카르타로 데려갔다. 소설은 머나먼 적도의 땅 암바라와에서 펼쳐진 조선인들의 슬픔과 격동의 역사를 손에 잡힐 듯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광복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어 했던 조선인들의 애끓는 수구초심으로 끝을 맺는다.



인도네시아 한인 작가 이태복 씨가 출간한 장편소설 ‘암바라와’



나주읍성 옛 모습 되찾는 호남의 ‘천년고도’

고창인 나주평야를 넉넉하게 품고 있는 전남 나주는 호남의 천년고도(千年古都)다.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머리 글자를 따 ‘전라도’라고 이름 지은 데서 보듯, 나주는 고려 성종 때 목(牧)으로 지정된 이후 구한말까지 1천여 년 동안 호남의 행정·경제·군사·문화 중심지였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300여 명의 목사(지방관)가 파견됐고, 조선 후기에는 세금으로 거둔 곡식량이 전국 1위, 인구는 5위를 차지했다.

나주읍성(사적 제337호)은 고려 시대 왜구방어를 위해 쌓은 토성(土城)으로 조선 초기 석성(石城)으로 고친 평지 읍성이다. 나주의 진산(鎭山)인 금성산(해발 451m)을 등지고 남쪽으로 영산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북악산과 한강을 품고 있는 한양의 지세를 많이 닮았다. ‘작은 한양’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읍성의 둘레는 3.5km, 성벽의 너비는 6m, 면적은 97만3천여㎡에 이른다.

한양 도성처럼 동서남북 방향으로 동점문(東漸門), 서성문(西城

門), 남고문(南顧門), 북망문(北望門) 등 사대문이 있다. 사신과 중앙관리들의 숙소였던 금성관, 지방관이 정무를 집행하던 동헌, 나주 목사의 살림집이던 내아 등 관아의 규모와 위상은 전국 제일이었다. 정조의 꿈이 담긴 조선 최초의 신도시인 수원화성 면적이 37만1천145㎡이니 당시 나주읍성의 위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이런 문화유산들이 일부 훼손됐거나 사라졌다.

영산강이 가로지르는 ‘작은 한양’

맨 먼저 들를 곳은 사대문 중 동쪽에 우뚝 서 있는 동점문이다. 동점이란 명칭은 ‘동쪽으로 점점 흘러 바다에 이른다’는 뜻으로 서경(書經)에서 유래됐다. 읍성을 가로지르는 나주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영산강을 만나 바다에 이른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동점문은 웅성이 설치된 2층 문루다. 읍성 바깥쪽에는 목

책을 이중으로 세웠다. 일제 강점기에 훼손되어 사라졌다가 2006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됐다.

동점문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목사 내아와 금성관(錦城館·전남 유형문화재 제2호)이 있다. 왕을 상징하는 지방궁궐이자 객사로 사용된 금성관은 조선 시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고을의 관리와 선비들이 모여 금성관 중앙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와 결패(關牌)를 모셔놓고 한양 궁궐을 향해 신하로서의 예를 다해 망궐례(望闕禮)를 올렸다. 외삼문(外三門)인 '망화루'를 지나면 너른 대지 위에 중삼문이 서 있다. 담장이 없는 문을 스치면 중앙에 정청(政廳)인 금성관이 있고 동서쪽에 객사가 나란히 자리한다. 금성관은 다른 객사 정청과는 달리 팔작지붕으로 이뤄져 있는데, 일제는 나주의 위상을 훼손하기 위해 내부를 개조해 군청으로 이용했다.

금성관 뒤쪽에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오랜 세월 곳곳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옛 번영의 흔적도 금성관 곳곳에 남아 있다. 동신대 문화박물관은 2015년 동측 부지에서 국내 현존하는 지방 관청 중 최대 규모의 조선 시대 연못 터와 정자 터를 발견했다.

망화루 앞 광장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천일이 호남에서 최초로 의병 300명을 모아 출병식을 연 곳이다.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기 위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저질렀을 당시 백성들이 항을 피우고 통곡했던 공간이기도 하다.


망화루 서쪽으로 동헌의 출입문인 '정수루'(正綏樓)가 서 있다. 2층에 있는 북은 '원통한 일을 말하고 싶을 때 치라'고 나주 목사였던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이 달았다고 한다. 정수루 바로 옆에는 나주목의 역사·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나주목문화원이, 뒤쪽으로는 동헌 터와 나주 목사의 살림집인 금학헌(琴鶴軒·전남 문화재자료 제132호)이 남아 있다.

목사 내아는 'ㄷ' 자형 안채와 'ㅡ' 자형 문간채로 구성돼 있는데 조선 후기 상류층의 생활공간을 엿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관사로 사용하면서 원래의 형태와 다르게 변했으나 최근 복원 작업을 거쳐 조선 시대 관아 건축의 원형을 되찾아 한옥 체험관으로 쓰이고 있다.

서성문은 동학군의 치열하고 비극적인 전투 아픔 간직

내아를 나와 골목을 따라가니 영금문(映錦門)이라는 현판이 걸린 서성문이 의젓하게 서 있다. 2011년 복원된 서성문의 현판은 1815년 발간된 '나주목여지승람' 서문의 '영금문으로 기록된 편액이 있었다'는 기록에 따른 것이다. 서성문은 가장 비극적이고 치열한 전투의 아픔을 품고 있다.

바로 동학군과 관군의 슬픈 사연이다. 1894년 음력 7월 나주 금성산에 진을 치고 있던 동학농민군은 두 차례 서성문을 공격했으나 끝내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대패했다. 허물어진 성벽에 서니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동학농민군의 함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해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는다.

서성문을 기점으로 250m 정도 범위에서 나주읍성 성벽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일제는 나주읍 개발을 핑계로 성문을 허물었고, 일제의 토지 수탈로 제 땅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남은 성벽을 해체한 뒤 그 위에 오두막을 짓거나 텃밭을 만들었다. 최근까지 무너진 성벽 위로는 무허가 주택이 뽁뽁하게 들어서 있었는데 나주시는 일부 성곽을 본모습대로 복원 중이다. 



2



3



4



5

1. 나주읍성 금성관(錦城館)
2. 나주천변에 우뚝 서 있는 나주읍성 동점문(東漸門)
3. 나주 목사가 기거했던 살림집 '목사 내아'. 나주를 찾는 관광객이 한 번쯤 머무르고 싶어 하는 한옥 체험관이기도 하다.
4. 영금문(映錦門)이라는 현판이 걸린 서성문의 의젓한 모습
5. 나주읍성 성벽의 흔적. 현장에서 관계자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2년 연속 경영실적평가 '우수(A)' 등급 획득

재외동포재단은 '2021년도 외교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해 재단 설립 이후 최초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받았다.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관리 및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외교부의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특히 재무예산 운영·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혁신성과 등 가점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해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2년 연속 '탁월(S)'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사업 전략을 재정립하고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모국초청사업 개최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다변화해 주요 사업 부문 역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021년 우수공시 기관 선정,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등급에 이어 '2021년 경영실적평가 우수등급'은 전 임직원의 노력이 빚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분야·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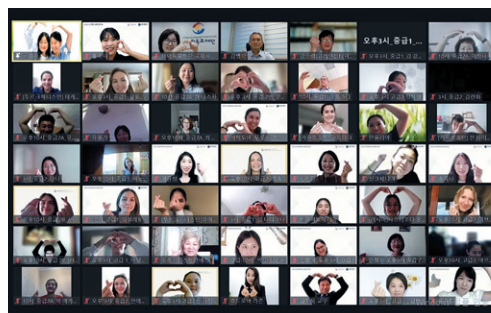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 제주본부 전경

가 우수등급'은 전 임직원의 노력이 빚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분야·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2022년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온라인 연수' 시행

재외동포재단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한국어 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5일부터 5주간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온라인 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54명의 한글학교 교사 및 현지 학교 한국어 교사가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한류 확산 등 현지 한국어 교육 열기에 부응해 연수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연수 대상도 기존 고려인 교사 중심에서 현지인 교사로 확대했다. 올해 연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했다.

참가자들은 7월 25일 온라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5주 동안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수업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한국 역사·문화



2022년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온라인 연수 개회식 장면

체험, 교육 실습, 친교의 시간 등을 갖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사전 요구를 반영해 기획했으며, 한국어 강의는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연수로 전환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참가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고려인 동포사회와 현지 사회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CIS 지역 동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차세대 교사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등록 9월 20일 마감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1월 1~3일 사흘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등록을 9월 20일 마감한다.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올해 대회는 전 세계 약 40여 개국, 3천여 명의 국내외 동포 경제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등록은 '한상넷'(www.hansang.net)에서 하면 된다.

올해 대회는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한상포럼, 한상 비즈니스 세미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기업전시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 기업가들의 '스타트업 피칭대회',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그램인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면접' 등이 진행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 행사', 세계한상대회 20년 역사 공유와 개최 20주년 축하의 장인 '한상 20주년 기념행사 및 만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개최지 울산의 중심산업인 친환경 신산업을 중심으로, 울산시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활동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과 현장 면접을 통해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는 국내외 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민족 최대 경제교류의 장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한상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안내 포스터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말레이시아: 이민전략을 통해 본 한인 사회 형성과 그 미래 홍석준 / 놀민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다. 대표 언어인 말레이어 외에도 최소 여섯 개의 언어가 사용되며, 종교 역시 불교·힌두교·이슬람교·기독교 등 매우 다양하다. 그 결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경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런 유연한 사회 분위기로 한국인들은 1990년대부터 말레이시아로 대거 이주했고, 2000년대부터는 언어 교육 목적으로도 많이 이주해갔다. 말레이시아 한인사회는 2010년 기점으로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빠르게 확대됐다. 최근에는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은퇴 시기 이주도 늘고 있다. 급변하는 동남아시아 한인 이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한인 연구사업의 하나로 동남아 한인사회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동남아 9개국의 한인사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로 결과물을 정리한 2번째 총서 '말레이시아 편'이 발간됐다. 이 연구 총서를 통해 말레이시아 한인타운의 급격한 팽창과 한인 이주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보고,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자.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상호문화소통과 문화 적응 김영순 · 갈라노바 딜노자 · 아지조바 피루자 / 북코리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고등교육의 최상위 단계인 대학의 수업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학은 자율성이 비교적 부여되는 교육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학업과 사회적 관계 맺기를 잘 이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한국으로 유학을 온 중앙아시아인 및 고려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사회적 적응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수행됐다.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시대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수행했고, 최근 그 결과물을 정리해 책으로 발간했다.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는 사회와 문화 분야의 여러 가지 현상을 정량 및 정성적인 조사 기법을 이용한 현장 조사를 통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해당 도서는 2022년도 대한민국학술원에서 발표한 사회과학 분야의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됐다. 모국으로 돌아온 학생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환경을 확인해보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되새겨 보자.





호주한국음식협회, '시드니 한식 축제' 개최

호주한국음식협회(회장 김영길)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드니에서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Korean Food Festival)을 개최한다. 한식의 맛과 문화를 전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한식당의 경영 활성화를 도와 '음식 한류'를 일으키려고 마련하는 행사다. 시드니와 근교 지역 50개 한식당이 참여해 현지인에게 한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코리아 고메'(KOREA GOURMET)를 진행한다. 협회는 소셜 미디어(SNS)와 한인 언론에 행사 소개와 쿠폰을 게재하고 포스터가 부착된 한식당에서 쿠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행사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후원한다.

미 캘리포니아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공식 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매년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했다.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8월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HR120)을 참석 의원 67명의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해외에서 5·18 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에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한 5·18의 의미와 함께 매년 5월 18일을 캘리포니아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한인총연합회, 독일 베를린서 청소년 통일캠프 개최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유제헌)는 7월 25~30일 엿새간 독일 베를린과 포츠담 주변지역에서 한국과 유럽의 중·고교생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통일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에는 서울, 경기도, 세종에서 선발된 중·고교생 30여명과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의 중·고교생 15명 등 청소년 4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베를린장벽과 체크포인트 찰리 등 동서독 분단과 통일의 현장을 방문하고, 독일 통일 당시 상황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2019년에 이어 2회째 열린 청소년 통일캠프는 재외동포재단과 통일부, 주독한국대사관,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의 후원을 받았다.

미 애틀랜타 한인사회, 추석맞이 한류 축제 연다

10만 명이 넘는 한인이 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추석을 맞아 대규모 한류 축제를 개최한다.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이홍기)는 9월 9~10일 이틀간 노크로스에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2022 코리아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측은 "올해 페스티벌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We Are One)로 정했다"며 "한인 2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타민족과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행사로 꾸민다"고 밝혔다. 9일 개막식과 전야제, 10일 코리아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광주시 한-우즈벡 수교 30주년 '고려무용단' 초청 공연

광주시 고려인마을(대표 신소야)은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우즈베키스탄의 '고려무용단' 초청 공연을 8월 6일 개최했다. 광주드림과 함께 마련한 무료 공연으로, 광주시 광산구 소재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 러시아 침공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고려인 난민과 모국에 동지를 든 고려인 마을 주민 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연에서는 뮤지컬 '사랑의 시'를 비롯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통과 현대 무용을 선보였다. '고려무용단'은 2000년 우즈베키스탄 국립필하모니 산하로 설립된 고려인 무용 단체다.

미국 속의 한인, 중국 동포 그리고 고려인 동포



김동찬
시민참여연대 대표

시민참여센터는 2004년부터 11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여름 풀뿌리 인턴십'을 진행해 오고 있다. 1996년부터 운영했던 토요 어린이 문화학교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대부분 한글학교를 그만두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 인턴십을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경험했던 시민 풀뿌리 활동 방식을 인턴들에게 가르쳐야 하겠다는 판단으로 풀뿌리 인턴십을 시행 중이다.

시민참여센터 인턴십의 주요 목표는 미국 시민으로서, 이민자 후손으로서 그리고 한인으로서 학생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부모 세대의 커뮤니티를 이해하며, 배우고 또 뭔가 변화를 시켜야 할 내용이 있으면 풀뿌리 활동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며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 인턴의 주요 활동과 성과는 2007년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과 워싱턴 연방 의사당 방문과 설득 활동, 2006년부터 인턴십 프로젝트로 뉴저지주 의회를 방문하면서 정치인들과 행정부를 설득해 이룬 2008년 뉴저지주 한글 유권자 등록 용지 공식화, 2009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도서관 앞 위안부 기림비 설립 등이 있다.

2022년 시민참여센터의 인턴 코디네이터로 고려인 애나 손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는 수년 전부터 미국 내 중국 동포들과 고려인 자녀들에게 인턴십 참여를 홍보해왔으며 그동안 여러 명의 학생이 인턴에 참여했다. 애나 손도 2년 전 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의 자녀들을 인턴십에 참여시키고자 지속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전 세계 어디에서 왔든 한민족의 후손이라면 모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묶어야 한다고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1세대 이민 동포들은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고, 특히 고려인들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함께 어울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영어권 자녀들은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기에 서로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 준다면 얼마든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모델로 뉴욕의 마운트 올리베 공동묘지에 잠들어 계신 고 황기환, 염세호 애국지사 묘지를 함께 방문하는 등 한민족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렇지 않아도 소수 중의 소수인데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서로 다르게 자라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같은 한민족의 형제라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계속 나누는 '미분'은 제로를 향해서 가고, 결집하고 계속 더하는 '적분'은 무한대로 나아간다. 정치력의 기본은 더 많은 숫자이고 그다음 투표를 통하여 결집한 힘을 만드는 것이다. 어디에서 왔든 한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면 격동기의 미국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창**



2022년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9월 개최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각국의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을 모국에 초청하는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The 24th Future Leaders’ Conference)를 9월 4~8일 닷새간 개최합니다.

해외 한인 차세대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는 서울과 지방에서 열리며, 목표는 ▲재외동포 차세대의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별 주요 인재 발굴 두 가지입니다.

대회 프로그램으로는 ▲차세대 재외동포 간 네트워킹 활동 ▲성장 스토리, 성공 사례 공유, 모국사회와의 교류 및 발전 방안 토론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강연 ▲분야별

네트워크 포럼, 주제 강연, 토크콘서트 ▲한국 정부 기관 방문 및 관련 인사 예방 ▲모국 역사·문화 체험 ▲국내 주요 언론사 인터뷰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회에는 만 25~45세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장기체류자 등 10년 이상 현지에 계속 거주했거나, 재외동포 교류 촉진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참가합니다. 정치, 경제, 법률, 주요 언론, 문화, 예술 및 국제기구 종사자, 지역별 우수 차세대 단체, 전문가 단체의 임원 등도 참가 대상입니다.

참석자들에게는 왕복 항공료 일부(실비의 최대 70%), 숙박, 여행자 보험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2022년 8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8월 8일: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 8월 16일: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오찬 주최
- 8월 16~19일: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

2022 드림 서포터즈

차세대 한민족 "꿈" 지원 사업
2022.08.22.(월) ~ 09.14.(수)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꿈 지원금 **500만원** 지원!!
멘토링, 선배 네트워킹, 세계한상대회 참가기회 제공!!

+ 지원자격

- 1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차세대 한민족
- 2 성장을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동기들과 함께하고,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을 수용하고 필요로 하는 차세대 한민족
- 3 내국인, 국외 거주 동포, 국내 체류 동포, 취약계층 등 KOREAN 누구나
- 4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차세대 한민족(1988년 1월1일 이후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출생자)

+ 합격자 활동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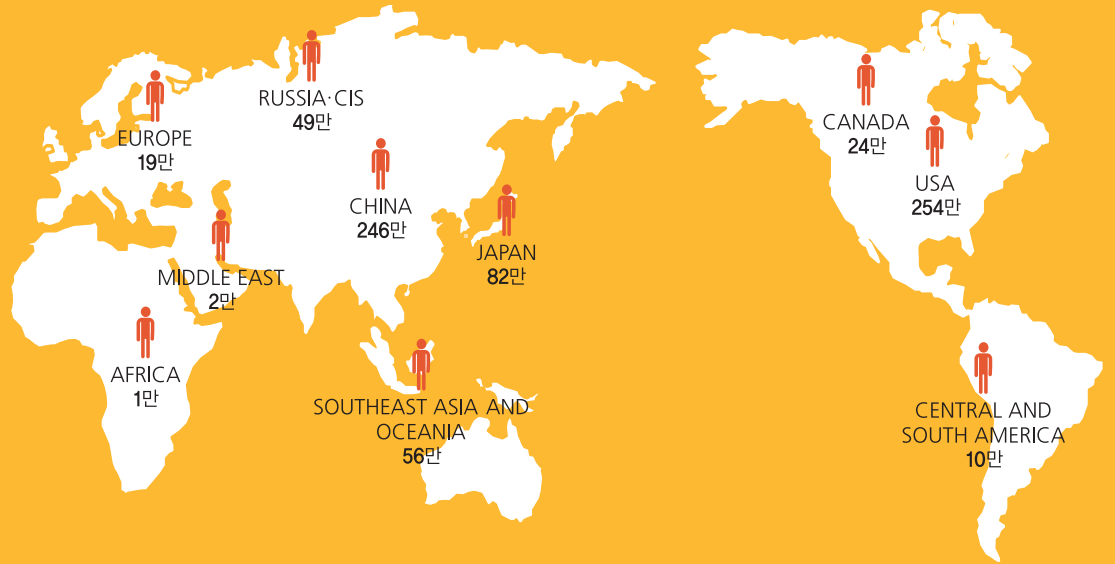
- 1 드림멘토링 연 3회 : 꿈을 위한 계획의 실현성, 구체성을 점검
- 2 전체 워크숍 연 1회 : 세계한상대회 참석
- 3 독서 토론 : 월 1회 선정도서 2권으로 드림서포터즈 독서 토론
- 4 기타 과제 제출 : 활동계획서와 활동 보고서 제출 등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과제

• • •

이메일 접수 : dream@hansangdream.org

지원서 파일 : 글로벌한상드림 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ansangdream.org/>)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